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2004 가을 통권 제20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02 1. 충남 지역 여성소모임을 찾아서
_ 칠갑산 구기자 한과 모임 / 이영세

07 2. 여성단체 소개
_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

08 3. 정책제안
_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 민경자

12 4. 지역문화 찾기
_ 가을비 내리는 날 비암사(碑岩寺)를 찾아서 / 임영수

14 5. 함께하는 생각
_ 환경시계 아홉시 이십구분 / 구영미
_ TV속 광고를 분석해 보면서 / 한병래
_ 갑사의 가을/ 진명희

19 7. 주부모니터통신
_ 아산시 주부모니터 이충경

20 8. 알림
_ 본원소식 / 도소식 / 여성계소식

32 9. 교육후기
_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을 마치고…
/ 정책연구실 교육팀

35 10. 함께하는 이야기
_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데 처음이라서...

36 11. 충남여성포럼
_ 충남도, '제12회 충남여성 포럼' 열려 / 김길호

38 12. 알아봅시다
_ 소비자피해구제절차안내

39 13. 개원이후 사업실적

본 코너에서는 충남지역의 여성소모임을 찾아 기획연재를 하고자 한다. 지역여성소모임은 고립적이며 의존적인 여성의 자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여성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적 틀로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자 주 –

칠갑산 구기자 한과 모임

_이영세(정책연구실장)

서울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획일적인 여성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를 바라는 여성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개개인의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이제 충남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소모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요즈음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와 인근 마을에서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3,40명 정도가 일주일 넘게 밤을 새워가면서 한과를 만든다.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형편이나 체력에 따라 할 일을 지시받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과 칠갑산구기자한과 영농조합법인은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

한과는 청양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구기자 가공기술과 솜씨 좋은 마을 할머니의 경험에 의해 부드럽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감촉과 구기자 향이 살아 있다. 이 때문에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구기자한과를 만드는 데에 사용된 찹쌀과 멥쌀이 각각 200가마 정도 들어갈 만큼 성장하고 있다.

소모임의 배경

1994년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생활개선회 여성 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800만원씩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동네에 전통한과를 솜씨 있게 만들기로 유명한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한과를 만들어 팔아 보자고 뜻을 모았다.

처음에는 마을회관에서 솥을 걸고 쌀을 찌고 튀기고, 회원집 안방까지 빌려서 한과를 만들어 재료비와 수고비 정도를 받고 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과 맛을 본 소비자들이 다시 명절 때 주문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마을 아주머니들은 돈을 모아 마을 한가운데 논을 메워서 20평 되는 공장을 세우게 되었다.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민명옥씨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믿고 따랐던 신춘자씨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니까 덩달아 같이 한 듯도 싶다. 다만 그때 한 각오는 만일 자신들이 만든 한과가 팔리지 않으면 머리에 이고 밖에 나가서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서 많이 팔수가 있었고 좋은 의견도 더 모을 수 있어서 머리에 이고 나가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칠갑산구기자한과는 일년내내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는다.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9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다음해 5월까지 일을 한다. 여름철은 고추, 구기자 농사일도 바쁘기도 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한과작업을 하기 힘들다. 한과를 만드는 데는 찌고, 튀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는 한과 수요가 없는 철이기도 하다.

관산리는 49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다른 농촌마을보다 인심과 단결력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편이다. 깨끗한 물이 마을로 흐르고 경치가 좋아서인지 도시에서 살고 있던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기도 하고 연고가 없이 귀농한 가구도 있다. 그래서 마을은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남편과 시어머니, 이웃들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가정이나 마을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게 갖고 있다.

소모임의 조직과 활동

칠갑산구기자한과는 얼마 전까지 다섯 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작년 7월에 대표이사였던 신춘자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서 이사는 모두 네 명이 되었다. 이사라고는 하지만 아래 위집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한동네 아줌마들이다. 현재 대표이사인 민명옥씨는 스스로 대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던 성격이라고 한다. 처녀 때는 집에 앉아서 자수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하는 민명옥씨는 당시 대표였던 신춘자씨를 믿고 뒤에서 열심히 밀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고 시

작하였다고 한다.

신춘자씨 뒤를 이어 대표가 된 민명옥씨는 걱정이 많다. 공장을 잘 경영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저기서 강연이나 연설을 청해 오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모두 거절을 하고는 있지만 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싫은 것은 마찬가지다.

돌이켜 보면 이런 정도의 모임으로 발전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회관에서 하던 일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문이 늘어나게 되자 공장을 지을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농촌에서 여성들이 출자를 하여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큰 모험이었다. 그 과정에서 세 명이 포기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아줌마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자본금 4천만 원을 마련하여 논을 메우고 가건물을 세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섯 명의 여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시골 아낙네들도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용기를 다지며 밀어 부쳤다.

그 후로도 구기자한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쇄기, 포장기, 저온창고 등의 설비가 필요했다. 다행히 다섯 사람의 의욕을 인정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설비를 할 수 있었다.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생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판로를 확보하는 일 또한 다시 큰 어려움이었다. 그 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연찬회'에 참석했을 때 우편주문판매라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칠갑산구기자한과를 대량으로 팔아 줄 업체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다면 우편주문이나 전화, 팩스 주문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편주문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기자한과를 접해 본 소비자들의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두었다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이다. 칠갑산구기자한과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맛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한과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마케팅 전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영농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정식으로 상호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 청양의 명산인 칠갑산과 청양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인 구기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칠갑산구기자한과라고 이름을 붙였다. 칠갑산구기자한과는 그 이후로도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왔다. 현재 개발된 구기자한과 상품은 소포장 상품에서 다양한 종류의 바구니선물세트에 이르기까지 9종류에 이른다.

리더

칠갑산구기자한과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리더는 신춘자씨였다고 할 수 있다. 한과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 공장을 짓는 것, 시설을 늘이는 것,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모두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었다.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 신춘자씨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설득시키고 격려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장을 지으면서 선뜻 자신의 논을 내놓은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따르게 한 큰 동기가 되었다.

농촌여성 소모임의 리더로 난관을 헤치면서 사업을 확장하여 가던 신춘자씨는 2000년에 대장암과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약 5개월간 침술로 치료까지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작년 7월에 안타깝게도 타계하고 말았다. 한참 일할 나이에 세상을 뜨니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신춘자씨의 얘기만 나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소모임의 영향

한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모여 십년간 매일같이 일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많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어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모두 같이 뭉치게 된다.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서로 이해가 깊어졌고,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 알 정도로 가까운 동료가 된 것은 큰 보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은 여성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농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소득이 낮아지고 활기를 잃어 간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과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특작물을 이용하고 고용효과도 높이고 소득이 생기게 되니 마을 주민들은 자신감과 활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구기자 한과의 재료로 사용되는 멥쌀, 찹쌀, 구기자, 참깨 등의 곡물은 모두 관산리와 그 이웃마을의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시중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한과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다시 가공하여 비누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와 전망

칠갑산구기자한과 소모임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열성적인 리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 신춘자씨는 주민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전 리더와는 다르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보여진다.

둘째, 소모임이 갖고 있는 평등한 운영방법이다. 대표이사부터 일당으로 품을 사는 일군들까지 모두, 하루 일을 하면 똑같이 2만원씩 받는다. 대표이사 역시 직위에 따른 보수가 따로 없다. 결산을 한 후 소득은 이사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이 점이 바로 여느 사업체와 다른 운영방식이다.

셋째, 마을의 분위기이다. 마을에는 여성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남녀평등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완고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습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자 주부라는 한계는 사업체 운영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산리에서는 남편들과 가족들, 시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는 사업을 기획하고 확장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나서서 여성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부담 없이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출 수가 있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지도사들의 지원이었다. 이들은 모임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접촉이나 물적지원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연결하여 주면서 신뢰를 주었다. 이들 촉진자의 역할은 칠갑산구기자한과가 설립되고 유지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소모임도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한과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한과공장만 해도 전국에 52개 업체이고 청양군만 해도 4개 업체가 있다. 한과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니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회장 조남계)는 기술화, 정보화, 국제화에 발맞추어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복지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1970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9-4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수는 662명으로 도내에 15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보호교육 및 캠페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생활용품 재활용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봉사활동 및 경노식당 운영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연중 사업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생활용품재활용 공공근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 지난 6월 14일에는 부여중앙전문요양원에서 200여명을 모시고 관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경노잔치를 벌여 웃 어른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를 치뤘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소비자피해주요사례 및 예방, 과당한 경품 제공에 대한 유의사항과 상품구입의 주의할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25쌍을 대상으로 가정문화강좌를 개설하여 25쌍을 대상으로 우리문화 이해 및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대화와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백제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역사유적탐방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충남여성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연구자 _민경자(前정책개발부장)

○ 머리글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① 결혼배경 및 동기, ②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그 요인, ③ 지원요구, ④ 충남 외국인 주부의 복지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현황, ⑤ 외국인 주부의 복지 및 사회참여 향상 방안, 정책과제 및 전략 등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뷰대상은 ① 외국인 주부 20인 (중국교포 주부 7인, 필리핀 주부 6명, 일본인 주부 7인 등) ② 외국인 여성 관련 활동가 9인 이며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장 개방과 경제의 국제화로 인해 노동자 및 여성들의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노동자와 성매매 종사 외국인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한 편이다.

본 보고서는 세계화의 추세에 의해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과 이들의 충남지역 정착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을 통해 충남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충남에 적응하며 나아가 충남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들의 고통이 무엇이며 어디에 기인하는 가에 유의하여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특히 한국 가부장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한 이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어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과 나아가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보고서가 충남은 물론 전국에 있는 외국인 주부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약하나마 이 연구가 외국인 여성 특히 주부에 관한 연구를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 연구결과

본 조사에서 외국인 주부들이 가장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가사전담 및 과중한 노동부담, 남편 및 시댁식구들의 간섭과 무시, 경제적 자율권 없음, 행동의 부자유, 남편의 폭력 등이 있고 그 밖에 외로움 등이다. 또한 도내 상담사례 분석 결과 외국인 주부들은 남편의 알콜중독, 구타,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 끊임없는 의심, 결혼시 계약불이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원인은 인터뷰 결과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언어문제, 외국인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비교적 이러한 문제가 없거나 본인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애로사항을 문제 삼지 않고 잘 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편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어려움을 살피고 가족관계에서 중재를 하고 또 부인이 사회활동을 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는 잘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활동 역시 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과 적응요인은 그들의 지원요구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한글교육, 요리강습, 문화강습,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 등 교육을 요구했고 직업 혹은 아르바이트 알선에 대한 요구도 컸다. 또한 상담, 놀이방, 등의 복지 서비스를 요구했고 나아가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설립 및 외국인 주부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모임주선 등을 요구하였다.

연구결과 제시된 외국인 주부의 복지 및 사회참여 향상 방안

외국인 주부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지

원, 상담 및 보호, 교육, 복지혜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외국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보, 자원, 보호, 일 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또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① 외국인 여성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해 주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②외국인 주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수요처가 개발되어야 한다. ③또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문화관광 프로그램, 외국어 강좌, 중국 요리 강습, 상담 등)을 개발해야 한다.

(2)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이들의 위축된 심리를 위로하고 삶에 용기를 주며 위기시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기존의 상담소로 하여금 외국인여성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야 하고, 기존의 상담소나 「여성1366」에 대해 농촌 구석구석까지 홍보해야 하며 이들에게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나아가 농촌지역에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기관 및 시설을 설립·지원해야 한다. 또한 ③ 외국인 여성이 한시적으로라도 피신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하며 ④ 외국인 주부 가정에 가족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3)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① 외국인 주부들 대상 한국 가족의 풍습과 예절, 가족관계, 한국어 등에 대한 교육, ② 남편 및 시부모 대상 교육(이들에게 이들의 고충을 알리고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가르침) ③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 대상 특별 교육 ④ 대중매체 종사자 및 공직자 대상 교육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 없애기) 등이 포함된다.

(4) 일정 소득 이하의 외국인 주부에게 복지혜택 (보육시설이용료 감면(할인)혜택, 공공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이용료·병원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위에서 열거한 방안이 효율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

다음은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1) 지원체계 구축

① 여성단체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③ 지역의 복지관 활성화

④ 상담소 및 쉼터 확충 및 협의체 활성화

⑤ 외국인 주부의 사회 활동 지원

(2) 정책입안 및 시책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시·군의 사회복지사 활용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제거 및 성평등 인식 제고

① 지속적인 캠페인 및 대중교육 실시

②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에 외국인 여성 참여 적극 추진

③ 경찰 및 행정기관 관계자들 대상 인권 및 여성주의 교육 실시

④ 모범 가정 사례집 작성·배포 및 모범가정 발굴·표창

(4) 외국인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

① 시·군 업무로 지정

② 외국인 주부를 다루는 부서와 읍면동의 복지사들 간의 협력관계 제도화

③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지정

(5) 외국인여성 자조단체 결성지원

① 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포럼 운영

② 상담원 교육시 외국인 주부 참여

가을비 내리는 날
비암사(碑岩寺)를 찾아서

_임영수(연기향토박물관장)

가을비 내리는 비암사의 모습은 더욱 쓸쓸하다.

천년을 지켜온 느티나무에서 빗방울에 맞아떨어지는 나뭇잎은 부흥운동에 참여한 백제 부흥군인 양 노랗게 물들어 떨어진다. 비암사는 옛날 뱀절 이라 불렀다. 이는『비암』이란 말이 충청도에서는 뱀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옛날 첩첩산중에 자리한 비암사에 비구니(여승)가 머무를 때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절 구경을 하러 왔다. 해가 질 무렵 나타난 낯선 남자로 인하여 여승은 경계를 하며 법당에 들어가 염불을 외우며 남자의 동태를 살폈다.

남자는 절 마당에 있는 삼층석탑을 돌면서 무엇인가 기원하는 듯 했다.

다음날 아침까지 탑을 돌던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났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스님은 매일 나타나는 남자가 이제는 궁금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물을 한잔 달라는 남자에게 때는 이때다 느낀 스님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궁금증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빙그레 웃을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스님은 궁금증이 더욱 가중되어 손수 정체를 밝히려고 아침에 사라지는 남자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남자는 비암사 뒤편 산으로 오르더니 산 정상에 커다란 바위가 나오고 아래에는 굴이 있었다. 남자는 굴속으로 들어갔고 스님은 그곳이 어떻게 생겼나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굴 안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스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 않는가.

구렁이 말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늘에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암사 삼층석탑을 백일동안 돌며 기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다만 백일 동안 너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비암사(碑岩寺) ▶

연기군 전의면 다발리 소재. 비암사의 창건은 경내 삼층석탑 위에서 발견된 석불비상(石佛碑像)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유민이 백제의 국왕 대신과 칠세부모 함령을 위해 절을 짓고 매년 4월 15일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673년 이전에 창건되었다.

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99일을 돌고 하루가 남았는데 스님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들은 스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자신의 욕심이 구렁이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니 스님은 비암사를 떠나 굴속에서 구렁이 수발을 들으면서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비암사는 뱀절이라 불렀는데 1959년 산 너머에 사는 동국대 다니는 이재옥이란 학생이 방학숙제를 하기위해 비암사를 찾았을 때 삼층석탑 꼭대기에 이상한 돌 세 개가 놓여 있는데 무엇인가 새겨져 있었다. 이를 탁본 떠서 제출하자 황수영 교수가 보고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이 비석모양을 한 비상(碑像)이라 한데서 비암사(碑岩寺-비석처럼 생긴 돌로 만든 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라 부르게 된 것이다. 즉, 이곳에서 발견된 석불비상(石佛碑像)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해석한 결과 백제 멸망기에 백제유민이 백제 역대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창건한 사찰임이 알려졌다.

석불비상의 이름은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 삼존석불상-癸酉銘 全氏 阿彌陀佛 三尊石佛像』으로 계유(癸酉)는 673년을 지칭하고 전씨(全氏)가 주동이 되어 죽은 이의 영혼을 왕생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셨으며 국왕대신 칠세부모함령이란 명문으로 비암사의 창건목적이 백제 국왕과 대신의 혼령을 위로하는 대제(大祭)를 지내기 위함이 밝혀진 것이다. 대제를 지낸 날짜가 매년 4월 15일이다. 물론 당시 음력으로 지냈으나 오늘날 재현에서는 양력 4월 15일을 선택하여 매년 백제대제(百濟大祭)를 지내고 있다. 비암사는 백제멸망 후 백제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부흥운동의 근거지인 금이성(金伊城)아래에 백제 유민에 의하여 673년 창건되었으며 그 목적은 백제 역대 왕과 부흥운동을 하다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이리라.

가을비 내리는 비암사는 더욱 쓸쓸하게만 느껴진다.

극락보전 앞의 삼층석탑도 그 정상이 거꾸로 놓인 채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어진 극락보전은 흙으로 구운 아미타 부처님이 약간 기울어진 자세로 앉아 있고 그 뒤 대형 괘불함은 지나가는 이에게 손이라도 내밀어 발목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비구니가 머무는 비암사에 비는 그치고 산신각 옆 좌선대에 가부좌를 틀고 지그시 절 밖을 바라보아라. 구름속에 얼굴 내민 국사봉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생각

환경시계 아홉시 이십구분

_구영미(천안 주부모니터)

꽃집을 하는 친구 집에 갔더니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음이온이 나온다는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사실 그 식물의 잎 몇 줄기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얼마나 우리의 유해환경을 없애 줄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유해물질에 대한 공포가 요즘처럼 부각된 적도 그리 없을 성 싶다.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의식주는 하루가 다르게 유해물질에게 침식당해가고 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고 있는 집까지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니 참으로 두려울 뿐이다.

실제 요즘 들어 아토피환자나 알레르기환자들이 부쩍 늘었고 그들이 새집이나 유해식품에 의해 발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웰빙이니 뭐니 하며 무공해식물이나 새집증후군을 없애준다는 각종 대체물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다. 물론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시외로 집을 지어 옮기거나 백화점의 무공해 식품매장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 등 각종 매스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하늘아래가 얼마나 썩어버렸으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함이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꾸짖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환경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시계는 저녁 아홉시 이십구분이란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자정이 되면 신데렐라의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더 이상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발표를 했다.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무시무시한 발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2000년 9월 나는 요즘 유행(?)하는 늦둥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족에게 아이는 비타민이며 즐거운 음악에 위대한 예술작품 이였다. 그런데 이 사랑스런 아이가 4개월을 좀 넘기며 온몸에 아토피를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위 어른들의 말대로 발에 흙이 묻으면 없어진다는 태열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큰 오산이었고 아이의 온몸은 피와 진물로 얼룩이 졌으며 눈가는 찢어져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으

며, 귀 끝은 찢어져 덜렁거리기까지 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현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다.

책에 있는 대로 물을 바꾸고 이불을 바꾸고 식단을 바꾸었다. 에어컨을 떼 내고 청정기를 달고 연수기를 달고 창문에 걸린 커튼을 모조리 떼 내었다. 그래도 아이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보채며 우는 아이, 그 아이를 붙들고 나도 참 많이 울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해도 그 아픔은 대신할 수 없었고, 태어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내 아이의 고통은 점점 심해만 갔다.

나와 우리가족은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에 대해, 입고 있는 간편한 화학섬유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스위트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다.

결론은 아이를 위해 여지껏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것은 우리가족에게는 큰 하나의 혁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오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손에 익지 않아 어렵고 마음에 맞지 않아 어렵다. 손쉽게 간단하게 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모두 바꾸어야한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 사회라는 것이 어디 누구하나 잘한다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만 우리사회 구성원 중 좀 더 지혜롭고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주부인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문제와 유해환경문제가 더 이상 특정지역의 고민거리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올림픽의 월계관을 쓰는 일도 아닌데 유해환경문제에 있어 일등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환경시계의 초침을 조금 늦추어 보자. 우리민족성의 최대장점이 위기에 강한 것이 아닌가? 내 집 거실에 음이온이 나온다는 식물을 사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운동가가 되어야한다.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라 환경운동의 가장 기초는 가족사랑 임을 인지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진정한 웰빙은 자기애와 가족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환경시계 오후 아홉시 이십 구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생각

TV속 광고를 분석해 보면서

_한병래(홍성 주부모니터)

어느 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우리는 TV광고를 볼 수 있다.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신문, 잡지, 빌딩위의 옥외광고, 자그마한 자투리 종이조각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는 그 종류와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너무도 방대한 양에 쉽게 질려버리고 외면시 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광고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넘쳐나는 상품 속에서 기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광고밖에 없는 것 같다. 기존의 방문 판매나 영업소의 홍보만으로는 이익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채널을 돌리던지 TV속의 광고는 줄기차게 내보내지고 있는데 채널을 손수 돌리던 시절엔 광고의 미래는 좀 더 긴 시간적으로 투명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모콘이 생기면서부터 광고가 자리 잡으려면 무언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광고가 나오자마자 다른 방송으로 채널을 손쉽게 돌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시청자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으며,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광고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단순히 재미난 광고에서 수려한 풍경을 제시하는 광고, 춤과 노래를 곁들인 오늘날의 광고의 모습은 단순히 제품광고뿐만이 아닌 기업이미지 광고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전환의 의도도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민감한 청소년층이 이를 먼저 깨달아 광고에 대한 열성은 가히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

좀 지난 광고였는데 어느 이동통신의 광고에서 "아버지 난 누구예요?" 하는 광고가 있었다.

유머스러운 모델의 동작으로 동네 아이들까지 자신의 손을 빙빙 돌리는 모습의 그 광고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었다.

이 광고의 main target이었던 10대와 20대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 유명한 모델이 나온 광고도 아니었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없이 즐기며 봐 줄 수도 있었겠지만

광고! 우리들은 어쩜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청소년들의 반응은 달랐다. 청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행로를 찾아야하는 갈등의 시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 심각하게 논하는 그러한 때인 것이다.

이 광고에서 우스꽝스러운 모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심각하게 골머리를 앓던 그들의 자아 찾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광고를 만드는 이들의 의도였는지 몰라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또 한 예로 과거 광고 속에 나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 살림을 잘 하는 순종형의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광고 속 여성상은 예전과 다른 많은 변화와 함께 남성과 똑같은 평등을 부르짖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연약한 여성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몫을 찾고 남성과 똑같은 위치로 사회생활을 해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으로의 테두리를 쳐놓고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렸을 수도 있었으리라.

현대의 이러한 많은 변화는 광고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광고! 우리들은 어쩜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주변의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주고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즐기고 자신만의 세계를 찾을는지도 모른다.

갑사의 가을

_진명희(예산 주부모니터)

여름은 가고 없지만
그 뜨거움은 아직 남아 있어
하늘을 향한 두 팔보다도
겸손히 조아린 무릎 밑으로
나무들은 일제히 제 그림자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면 홀가분하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가벼워진다
눈을 뜨면 산에 오르는 사람들
발끝마다 세상의 얼마만큼 새겨 놓고
산사(山寺)의 나무되어 스스로 몸을 태워버리는가
한때 푸르렀던
한때 바람과 마주했던
그 상채기 하나하나 휩쓸릴 때마다
산사의 종은 홀로 울린다, 홀로 울어 퍼진다
여름은 가고 없지만
그 자리에 뜨거움은
아직도 붉게 살아 있어
스스로의 무게만큼 떨쳐 버리며
나무들은 빈손을 모으고 다시 또 모아
묵묵히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_약력
_ [조선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_ 제5회 충남예술문화상 및 제11회 충남문학 작품상 수상
_ 한국예총 예산 부지부장 및 한국문인협회 예산부지부장

*주부모니터 통신

_이충경(아산시 주부모니터)

아산시민이 직접 뽑은 친절공무원 '봉사왕' 선정

- 시청 방문 불특정 민원인 500여명 대상 -

아산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특정 민원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뽑는 친절공무원'을 선발했다.

선발 결과 친절공무원으로 최완수(기능9급, 지적과), 이선화(행정7급, 종합민원실)씨가 영예로운 친절봉사왕으로 선정 됐다.

이들 공무원은 직무에 항상 성실함은 물론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주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완수씨는 93년 10월 총무과에서 시작하여 현재 지적과에 근무하면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항상 밝은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이선화는 지난 88년 서울 종로구청에서 첫발을 내디딘 후 2002년 1월 아산시 종합민원실로 발령 받아 민원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99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선진지 견학의 특전이 주어졌다.

직접 만든 맛있는 제빵 맛보세요!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구)에서는 여성전문능력개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과제빵반 교육이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여성들의 큰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16회에 걸쳐 실시하는 제과제빵 교육은 고구마 케익, 빵, 도넛, 소프트롤 케익, 식빵, 단팥빵 등 일반 제과점에서 시판하는 빵을 직접 만들어 보며 솜씨를 뽐내고 있다.

이번 제과제빵반 강사인 탕정면 갈산리 김영순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빵 기초를 배운 후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여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강하는 제과제빵반 강사로 봉사활동 하며 생활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해 식품가공실내에 오븐 등 제빵기, 제면기, 추출기, 고압솥, 제조기, 건조기 등 농촌여성들 교육에 필요한 30여종의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천연 염색, 농산물가공, 제과제빵 등 7개 과정을 과제별 테마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 일 여성노인정책포럼' 개최

- 고령화 사회 대비 '한 · 일 여성노인정책'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 모색 -

본원과 충청남도는 지난 7월 7일 아산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 시오타니요시코 구마모토현지사를 비롯한 일본 측 관계자 30명과 충남도 여성관계자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 일 여성노인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충남도와 오랜 우정을 다져온 일본 구마모토현 여성계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양 도 · 현의 여성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 폭넓은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1부 행사는 의식행사로 ▷이재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의 '개회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의 '격려사' ▷시오타니 요시코 구마모토현 지사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2부 행사는 주제발표 및 토론시간으로 ▷일본측 타카키미호코 재택개호지원시설 시설장이 '여성고령자를 위한 지역보건복지활동의 실천사례'에 대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황창연 박사가 '고령화시대 충남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키우노에 케이코 구마모토현 노인복지시설협의회 회장 ▷나까시마노리코 교쿠코마치사회복지협회사무국장 ▷김홍란 가나안노인의집 원장 ▷유성호 선문대학교 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많은 의견교환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구마모토현 타카키미호코 시설장은 "구마모토현 세이와마을의 예를 들며, 이 마을 총인구 3,436명중 고령화율은 32.8%이고 후기 고령자는 47.2%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 등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측 대표로 주제발표를 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황창연 박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0년후에는 인구 4명중 1명이 노인이 차지할거라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가 되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은 24년이 걸렸고, 한국은 19년이 소요될 전망이여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통계연보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도 2003년 총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7%로 전국평균 8.1%보다 크게 높은 편이며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6.1세로 일본 남성 78.1세, 여성 84.9세 보다는 다소 낮지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저축 율 하락, 재정악화는 물론 노인실업, 의료 및 사회복지 증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호 교수와 김홍란 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1991년 노령수당지급, 1998년 경로연금제실시, 1997년 노인의 날 제정 등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여가, 취미활동, 가정문제 등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오타니요시코 구마모토현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랜 우정을 다져온 충남도와 여성노인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한 · 일 모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인복지문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본원 교육팀에서는 지난 7월 9일 충남지역의 농촌관광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여성의 역할을 분석하여 여성을 농촌관광의 주체로서 참여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성농업인,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30여명을 모시고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세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최애순(서천 마서면 합전리 아리랜드)씨의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박분이(홍성군 광천읍), 이삼순(보령시 신대3리)씨의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은식 지역사회연구실장과 김시형 충남도청 농정유통담당을 모시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체로서 농촌지역 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성소자본 창업과정을 마치고..

본원 교육팀에서 실시한 「여성소자본 창업과정」교육(7월 12일 ~ 7월 27일 까지 총 76시간)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본 과정은 창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창업을 활성화 하고 여성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개설하였다. 특히, 이번교육은 여성부 소자본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의 요건에 충족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창업자금지원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게 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 환경변화와 여성창업,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직업적성검사, 트렌드 변화와 창업마인드, 고객관리 구축과 고객만족, 외식업의 이해, 마케팅 전략, 서비스업의 이해, 판매업의 이해, 점포입지선정, 점포계약, 프랜차이즈의 이해, 광고전략과 매출증대, 점포 인테리어, 창업자금 마련 및 창업계획 작성, 창업에 필요한 세무상식, 성공창업 사례견학, 창업후의 사후관리, 디자인과 소점포 경쟁력, 세계인의 상술비교, 나의창업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본원 원장(이재우)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았고, 여성부 소자본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출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생들이 앞으로 창업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을 마치고

본원 교육팀에서는 충청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8. 16(월) ~ 8. 17(화)까지 1박2일동안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귀화여성농가 부부의 적응과 상호이해를 넓히고, 귀화여성의 농촌생활 정착과 평등하고 안정적인 가족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내용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꾸기, 부부간 이해하기와 의사소통법, 가족과 함께하기 프로그램,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부부로서의 앞날 설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보육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탁아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30쌍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교육수료생은 본원 원장(이재우)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더 많은 국제 가정들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교육기회를 주신 충청남도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실시

본원 교육팀에서는 서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9월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동안 본원에서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27명을 대상으로「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성단체지도자로서의 성찰과 자기개발을 모색하고 여성단체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은 ▷장현자 대전서구의원이 "여성단체의 조직관리와 갈등관리"란 주제로 조직관리 및 갈등관리 기법, 조직관리 및 갈등상황 관리와 극복경험에 대해 ▷김미화 한국애니어그램 영성연구소장이 "애니어그램을 통한 나의 발

견"이란 주제로 나의 성격과 유형파악, 나의평가에 대해 ▷김경희 대전여민회 부회장이 "지역사회와 여성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여성활동가의 역할, 지역사회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둘째날은 ▷안여종 대전문화유산 해설사와 단합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의 관계자는 "서산시 여성단체의 발전과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지도자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많은 여성단체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단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2030 우먼리더십 캠프 실시

본원 교육팀에서는 충청남도의 의뢰를 받아 9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본원에서 도내 20~30대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2030우먼리더십 캠프」를 하였다

이번 캠프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향상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캠프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은 ▷임우연 충남대 강사가 "여성의 현실과 문제 바라보기"란 주제로 여성의 인식과 토론, 여성으로서의 사회인식, 외모중심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 등에 관한 주제토론을 ▷이영희 내마음의 극장 대표가 "여성지도자로서의 미래설계"란 주제로 나의 장점과 단점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장점부각 및 단점 보완방법 찾기, 리더로서의 미래설계에 대해, ▷권정숙 청운대 교수와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부장이 모의국회 준비를 하였고,

둘째날은 ▷홍승미 병무청소집과 팀장과 오혜영 로뎀디자인 대표를 모시고 여성리더 초청 좌담회를 ▷권정숙 청운대 교수와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부장이 모의국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의 관계자는 "교육참가자들이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매우 성실하였으며 20~30대 젊은 여성층에게 정치의식 강화 및 계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십 훈련을 통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 핵심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5일 공주에서 제21회 충남여성한마음축제 열여

- 여성단체회원 · 주부 등 1,000여명 참석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춘자)는 5일 오전 10시부터 공주백제체육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여성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의 도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제21회 충청남도여성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스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는 9돌을 맞는 여성주간(7.1 ~ 7.7)을 기념하고 21세기 여성시대를 이끌어갈 충남여성들의 사기진작과 정보교환 등을 통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오전에는 시·군별 또는 참가자 전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 등 화합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여성발전 유공·모범여성·모범가정 등에 대한 표창 ▷16개 평등문화 가정에 대한 지정 패수여 ▷조춘자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대회사' ▷심대평 도지사의 '격려사' ▷이복구 道의회의장의 '축사' ▷오영희 공주시장의 '환영사' ▷결의문 채택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끌어 가는 당당한 자부심과 창의적인 능력,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의 에너지와 조화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은 물론, 우리 충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춘자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오타니 요시코' 구마모토현지사, 충남도 방문

- 충남도 주최 한일여성포럼 참석, 양도·현간 교류확대 등 협의 -

일본 구마모토현 시오타니 요시코(潮谷義子) 현지사가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한일여성포럼 참가하기 위해 일행 30여명과 함께 7월 6일 오후 충남도를 방문했다.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는 이날 참가단 일행 30명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접견하고 환담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심 도지사와 시오타니 현지사는 도와 현간에 여성과 노인복지, 청소년 분야 등에서 상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할 것과

상호 방문연수 등 실질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구마모토 현지사 등 참가단 일행은 7월 7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충남도가 주최하는 "한일 여성·노인복지정책, 서로에게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일여성포럼」에 참석한 후 오는 8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난해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을 비롯한 농어민, 청소년 교환연수, 행정시책 의견교환회, 농업, 환경,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중에 있으며, 현재 구마모토현에는 충남도의 대일본 교류통상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구마모토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군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개최

충청남도는 14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 시·군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는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격려사'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의 '변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여성공무원의 나갈 방향'에 대한 특강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토론 및 발표시간' ▲선후배 여성공무원간 '멘토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대평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힘써온 여성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가오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 같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각자가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여성공무원의 나갈 방향"이라는 주제 특강을 한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이제 지방행정도 「맞춤식 차별화」 행정이 요구된다."면서 "섬세하고 Soft한 여성공무원이 이러한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도내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은 집단토론을 통해 지역여성 발전

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선후배 여성공무원간 멘토링과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성매매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충남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충청남도는 7월15일 충남여성개발원에서 성매매 ·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구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성매매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충남지역협의체는 유덕준 충남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법 · 법률기관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 1, '충남여성1366' 1, 여성 · 사회복지기관 8, '119' 1, 여성단체 1, 행정기관 4 등 20개 기관 · 단체 23명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설명 ▲참여 기관 · 단체별 2004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계획 발표 ▲2004세계 여성의 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매매 · 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협의와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덕준 위원장은 "그동안 성매매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성매매와 여성폭력을 우리의 공동과제로 인식, 지속적이고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협의체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동 대처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영애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지난 3월 22일 제정 공포하여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여성을 매개로 검은 돈을 버는 성산업과 여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6월 여성자원봉사왕에 박현숙씨 선정

- 6월 한 달간, 21회 86시간 봉사 -

충청남도는 도내 여성자원봉사자중 6월 한 달 동안 가장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천안시여성자원활동센터 박현숙(朴賢淑, 51세, 천안시 거주, 사진별도)씨를 '6월의 여성자원 봉사 왕'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6월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발된 박현숙씨는 6월 한 달 동안 ▲폭력피해여성 상담 ▲여성폭

력 쉼터 안내 및 청소 ▲여성쉼터 입소자 자녀 상담 및 교육 등 21회에 걸쳐 86시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현숙씨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전도사였는데 교회 사모님이 권유로 상담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해부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현숙씨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으로 오고 갈 대가 없어 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내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음을 아우르고 상담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도내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953명이 참여하여 11,547시간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가정에 생계비 등 17억 9천만원 특별지원

충청남도는 20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번 특별 지원사업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교육비 · 소액의료비)와 의료비(입원환자)를 지원하게 되며, 도움을 받고자하는 분은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민관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매월말 개인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시 · 군별 배분된 지원액에 따라 모두 17억 9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의료비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2,384명)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생계비는 최고 6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1회) ▷의료비는 3일 이상 입원환자(수술비용, 입원보증금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20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가구별)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비록 적은 금액의 한시적인 지원이기는 하지만, 생계비와 의료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여성자원봉사왕에 김옥수씨 선정

- 7월 한 달간 11회 88시간 봉사 -

충청남도는 도내 여성자원봉사자중 7월 한 달 동안 가장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금산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소속 김옥수(金玉洙,

52세, 금산군 금산읍 상리 거주, 사진별도)씨를 '7월의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7월 여성자원 봉사 왕으로 선발된 김옥수씨는 오래전부터 학교급식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학교급식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분의 권유로 지난 4년 전부터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독거노인에 밑반찬 만들어 제공, 목욕 봉사활동 등을 매주 화, 수, 목요일에 해 오고 있으며, 7월 한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88시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옥수씨는 앞으로 이·미용 기술을 배워서 어르신들의 머리도 직접 손질해 드리고, 말벗과 집안 청소도 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기뻐하는 모습과 고마움을 표할 때 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힘이 닿을 때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도내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929명이 참여하여 12,342시간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충청남도여성체협의회(회장 조춘자)에서는 성매매·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 해체방지를 위한 성매매·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9월 16일(당진군가정복지회관)과 9월17일(청양군청양문화체육센터) 2차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여성폭력이 사회범죄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문제라는 올바른 인식 개선과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교육으로 ▲우송정보대학 임원선 교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건전한 가정문화정착 방안"에 대해 ▲대천가정폭력상담소 이혁의 소장과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희재 소장의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에 관련한 현장체험 상담사례"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

- 여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

충청남도는 도내 가정·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치료와 자활까지 지원하는 「가정·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여성부로부터 금년도에 처음으로 복권기금 150백만원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충청남도는 그동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자과정 교육 등을 마쳤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5개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가 상담, 집단상담, 심리치료 및 부부캠프 등을 운영하며, 교육대상자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 자 및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등 1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자와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성폭력으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과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보호시설(3개소)과 성폭력상담소(1개소)에서 시설 입소자 및 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해당시설의 주관하에 실시된다.

▲성매매피해자의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선도보호시설(1개소)에서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이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폭력이 행동 레퍼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므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실시해 온 피해자 보호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색이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보호와 구조는 물론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하여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2005년도에도 본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道, 여성 참여마을 만들기 「여성 통·이장」 교육

충청남도는 9월 23일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의 풀뿌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도내 여성 통·이장 214명을 대상으로 「여성 통·이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사회 참여확대에 따라 여성들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행정 발전에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사명감 고취와 지역사회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시기성과 평소 통·이장 업무수행 소양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의 격려사 ▲김동완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의 "신행정수도의 충남시대 지역특성화 발전과 충남의 대응전략"에 대해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의

"여성 통·이장의 역할과 리더십"특강이 있었으며 ▲도담당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설명,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도내 3개소(천안,논산,보령)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안내와 ▲논산시 논산읍 취암 7통장 김영자씨와 계룡시 두마면 엄사 6리 박혜숙 이장의 사례발표도 있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도내 여성 통·이장들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여성의 능력향상과 새로운 인식전환을 통한 지역 사회발전의 리더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여성자원봉사왕에 명명예씨 선정

- 8월 한 달간 38회 99시간 봉사 -

충청남도는 도내 여성자원봉사자중 8월 한 달 동안 가장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예산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소속 명명예(冥明禮, 58세, 예산군 예산읍 거주, 사진별도)씨를 '8월의 여성자원봉사왕' 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8월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발된 명명예씨는 남편(홍성교도소 교화위원회 회장)을 따라 모범수형자 관광안내 및 도우미, 밑반찬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틈틈이 해오다가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는데 무언가 열중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남편의 권유로 본격적인 자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공적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매일 아침새벽에 예산읍 뒷산 봉대미산에서에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지도(8월 한 달간, 31회 62시간) ▲가나안 노인의집 어르신들에게 레크레이션 및 말벗 봉사(3회, 18시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목욕 및 발마사지(4회 19시간) 등 8월 한 달 동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99시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명명예씨는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힘닿는 데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자원봉사왕 선발제도는 충청남도가 가정살림·사회활동 등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여성자원봉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가장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여성자원봉사자 한분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제도이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도내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835명이 참여하여 11,503시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 청운대 / 여자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캠프

청운대학교(홍성군 소재)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학생생활연구소 주최로 8월 25(수)~26(목)일까지 1박2일 동안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캠프'가 열렸다.

이 캠프는 여자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취업단계에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8월 25일 2시에 등록이 시작되었고, 캠프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캠프를 열며'에 이어 '나의 미래설계'에서는 DBM Korea의 임문수 수석 컨설턴트가 여자대학생들의 직업진로 개발의 필요성과 현재의 직업트랜드를 짚어주었고, '취업을 위한 심층자기분석'에서는 정해영 직업컨설턴트가 MBTI 성격진단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성격유형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법, 구직법 등을 소개했다. '전문가와 함께 1'에서는 김소현, 정해영, 노지선 컨설턴트가 참가자를 세 개의 조로 나누어 미리 준비해 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지도하고 코멘트해 주는 전문가 클리닉 시간이 있었다. 이어 팀빌딩(팀별 단합도모)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모두 게임을 통해 조별 친목을 도모하고 강사들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8월 26일에는 모두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끝낸 후, 25일 전문가 클리닉에서 수정받았던 개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한번 수정하였고, '취업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지선 컨설턴트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와 각 사이트의 특징, 장단점, 사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전문가와 함께 2'에서는 집단면접과 프레젠테이션면접 방법을 듣고 실제 면접을 위한 준비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면접 실전을 경험하고 참가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코멘트를 받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캠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였고, 참여자들과 전문가들이 "준비도 Best", "참여도 Best"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취업준비에 얼마나 무지했고 소홀해왔는가를 새삼 깨달았고, 아직 3학년이라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라는 평을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지식과 열정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참여자 모두 캠프가 끝난 후 후속모임을 갖고 앞으로 취업분비에 힘을 모을 것과 당당히 취업해서 만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충남도청 여성정책관실에도 깊은 감사를 드렸다.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을 마치고..

_정책연구실 교육팀

- 국경을 넘어 농촌을 지키는 부부들, 이들을 돕는 농정유통과 -

우리 언니와 누나들도 가족을 위해 낯선 먼 나라로 일하러 가거나 결혼을 하러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남자의 사진 한 장을 보고, 며칠을 걸려 배를 타고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시집갔던 사진신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중국연변 여성들이 농촌총각들과 결혼하기 위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약 2년 전부터는 필리핀 여성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농촌남성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배경과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서로 큰 돈이 들고 미래의 불안을 감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결혼한 당사자들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조금은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국제결혼을 권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라고 쓴 프랭카드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와이 사진신부들은 남편과 말은 통했고 같이 간 동료들과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여성들은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대부분 시부모님이 계시는 대가족속에서 삽니다.

여름이 살짝 풀이 죽은 지난 8월 16일과 17일에 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국제결혼을 하여 충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혼인귀화여성농업인부부들이 바쁜 농사일을 잠시 쉬고 함께 모여 1박 2일 캠프를 했습니다.

낳은 지 두 달된 아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자녀들 30명을 포함하여 모두 83명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하던 저희 원이 이들의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모두들 약간 어색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는 금방 좋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확인하고 반가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희들은 이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먼저 혼인

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을 지원하여 주신 충남도청 농정유통과의 선진적인 정책기획과 시군 농정정보인력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의 사업 지원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런 일연의 사업을 수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이자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추진이 결합된 적절한 수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고추농사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빨개져 가는 고추를 매일 손으로 따서 말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놀랍게도 고추농사가 제일 많은 청양에서 무려 아홉 가족이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청양여성단체협의회가 외국인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학교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에서도 한국문화교실이 열리고 있어서 여섯 가정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한꺼번에 되는 일이 없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전 준비에 의해 무르익어야 결실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또 교육에 참석하신 남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대체로 아내들은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들은 캠프나 교육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하고 내심 마땅찮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 남편들은 정말 칭찬할 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30명의 아이들을 돌봐 줄 보모와 자원봉사자 다섯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도 왔고 낯선 곳이라 그런지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보채는 바람에 교육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소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모두들 열심히 흥미있게 참여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부부간에 마음을 통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온지 10년이 넘어서 우리말과 글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여성부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성들까지 다양한 기간, 국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매우 달랐지만 마음은 기대 이상으로 잘 통했습니다.

부부별로 서로를 소개하게 하면서 칭찬 한마디씩을 하게 했는데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에 대해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농사일도 잘 하고 착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들은 술만 적게 마시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농사일이나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바라는 소망, 내가 노력하고 바꾸어야 할 점 등을 표현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여성들은 그림을 통해, 남성들은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피해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이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참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억눌렸던 서로의 감정들이 드러나면서 울컥해 지기도 했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모두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로, 아니면 표정이나 몸짓으로 서로의 마음과 다정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별로 남편과 아내들은 함께 모여 현재의 소망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여성들은 나라별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잘 알 수 없는 가사였지만 태어난 나라를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설계에는 부부가 빠짐없이 나와서 장래를 위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부부들은 모두들 이 프로그램이 즐거웠고 유익했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행복한 가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 100쌍 중에 8쌍이나 9쌍이 국제결혼한 부부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촌사회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 이들 부부가 겪는 문제를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합니다.

이 부부교육과 연결하여 충남도 농정유통과와 본원은 올해 추수가 끝나는 11월에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오셨던 나라별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 자랑거리를 잘 준비하여 발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 여성들을 보낸 나라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을 지원해 주신 충남도청의 농정유통과와 시군의 농정담당, 그리고 바쁜 중에 가족과 함께 캠프에 참석하여 주신 농업인 부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농촌사회가 안정되고 활기를 띠우는 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데 처음이라서....

"함께하는 이야기"는 취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_편집자 주

Q.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회사여서 잘 모르겠는데,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4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처음엔 원래 그런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잠자리에서도 허리가 아파요. 때문에 좋게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게 그만둘 수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물건을 잘 못 보내서 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있는데, 한 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만둘 때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료, 선배들은 잘못 배송한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만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건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14일 정도 일한 수당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무척 고민되네요. 꼭 알려주세요.

A. 귀하의 요통의 발병원인이 업무와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졌거나, 삐끗하는 등 요부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업무상 과실 여부, 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이전에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건강상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제12회 충남여성포럼' 열려

– 여성고용 · 비정규직 문제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 –

_김길호(행정실)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임선희)은 10월 29일 연기 고려대학교에서 유덕준 충남도 행정부지사, 표시열 고려대부총장,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2회 충남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여성의 고용, 비정규직문제의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1부에서는 ▷임선희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의 '인사' ▷유덕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의 '격려사' ▷표시열 고려대부총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기조발제를 통해 '정당의 여성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의 정책 및 과제'에 대해 ▷김성자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이 '충남의 여성고용, 비정규직문제 현황 및 대책 발표'이었고 ▷심문보 한서대교수와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한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OECD평균 60%에 못 미치며, 특히,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56.6%로 OECD평균78.4%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가 5%선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2007년까지 일자리가 146만개(남자 80만개, 여성 66만개)가 필요하다며, 실업난속에서도 여성의 실업률은 최악으로 대졸 남성의 실업률이 3.3%인데 반해, 대졸 여성의 실업률은 5.8%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13%, 여성인구의 26.2%를 차지하는 전업 주부들중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가 77.6%에 달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 고용 확대방안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 거시적, 중장기적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에 대비 여성인력의 활용 및 개발이 필요하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시장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과 취업 지

원체계 확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적극지원,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화 등을 들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여성임금근로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말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53.7%, 사회보험 가입률은 22-25%수준이라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개선에 대한 사업주의 인센티브제공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피해구제절차안내

「아는 것이 힘, 부당한 피해에서 스스로를 보호합시다.」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시에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통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2. 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에 피해규제를 요청하는 방법
3. 한국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방법(합의=재판상 화해)
4.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구제의 방법

소비자 피해 보상은....

해당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구제를 받는다. 만일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1999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책개발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 9. 8	도청 대강당	300명	여성교육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 9.2~11.9	시·군순회	2,000명	

2000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책개발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 27	본원 대강당	50	정책개발부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 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 23	본원 대강당	44		
개원1주년 기념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 14	본원 대강당	50		세미나
충남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 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 26	본원 대강당	20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 11	본원 대강당	31	여성교육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 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 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무원교육원 강의	6. 1~6. 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 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 22~8. 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 25~9. 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 25~9. 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 17~11. 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 19~10. 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 18~12. 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교포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 19~12. 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2001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책개발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 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 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 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 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 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 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 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 4	본원 대강당	200	〃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 6	본원 대강당	80	정책 · 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 · 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 6~ 8. 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 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 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 1~2. 21	천안YMCA강당	20	여성교육부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 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 22, 3. 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 10~11. 30	공주, 아산, 당진, 예산, 태안, 연기,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 18~5. 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 23~5. 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 25~10. 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총4회
여성 · 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 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 9~7. 13	본원대강당	50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 19~7. 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 23~8. 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 31	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 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 13~9. 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 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 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 16	본원대강당	100		
여성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 16	본원대강당	10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 29~12. 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지원과정」	12. 27~12. 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2002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 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 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 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 3주년 기념「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 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 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 구 과 제 명	일 자	장 소	비 고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1차교육	2. 22	꽃박조직위	18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2차교육	3. 20	꽃박조직위	19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3차교육	4. 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 27-5. 31	대 강 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 과정	6. 24-6. 28	세 미 나 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 12-7. 13	대 강 당	62
공주시 저소득모 · 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 1-2(1박2일)	대 강 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 28-8. 30	세 미 나 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 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 2-9. 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 30/10. 2/10. 4	대강당	18/27/27
2002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10. 7-11 본선 10. 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 1~8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 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 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 1~11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 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 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 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 1~12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 1~12	여성교육부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 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1~12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 고
어린이 인성교육원 자문용역 – 미래인재양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	02.10~03.4	정책개발부	충청남도
아시아의 농촌과 여성의 지위 – 충남도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	03.2~04.3		日구마모토현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연구 용역	03.6~03.8		여성부
어린이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을 빛낸 사람들 외 5개 주제 –	03.7~03.12		충청남도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 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 3~4(1차) 11. 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 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 3	대강당	6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회관 소강당	16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책개발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충남여성농업인 생활양식 연구	'04. 1~10	정책연구실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04. 1~11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 17	천안 쌍용3동 사무소	7	정책연구실	
개원5주년 기념 한·일 여성노인정책 포럼	7. 07	선문대학교	120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7. 09	세미나실	25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 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 19~23(A조) 4. 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4. 19~4. 23(예선) 5. 7(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 24~6. 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 27~28	대강당 / 세미나실	43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7. 12~27	대강당	59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	8. 16~17	대강당	82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9. 2~3	세미나실	27	
여성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교육 (결혼초기)	9. 9~10	세미나실	20	
2030우먼리더십 캠프	9. 21~22	대강당	43	
2004실버인터넷경진대회	10. 4~13(예선) 10. 22(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교	496	